

선교회지 MAR 2013 '봄' 호 통권 14호

Universal Care

부르심 그리고

獻身

드릴 현

봄 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는 의료 및 교육, 찬양 등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열방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하여 결성된 선교회입니다

발행인/정진호
편집/ 편집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2
트리플타워 A동 303호
Tel 032) 329-2875
Fax 032) 329-2879
www.cyworld.com/universalcare
발행일 : 2012.03.16



표지설명

부르심에 감격하고 헌신을
고백하는 나의 삶 되게하소
서!

(Designed by 강가영)

Contents

01 Prologue"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정진호

부르심 그리고 獻身

04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이삭 목사

06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헌신들
/황필남선교사

15 아내와 함께 한 선교 인턴 훈련/정태화선교사

19 선교로의 부르심 그리고 헌신/김우섭 선교사

23 부르심과 선교적 소명/강다니엘 선교사

28 부르심 그리고 헌신 / 엄천영 선교사

33 Hello? Africa! / 임문규

Universal Care 몽골 선교 장학생

37 트모르 전도사 간증

선교지에서 온 편지

40 성경 번역 선교회(G.B.T)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45 B국 /주바울 선교사

48 ANKA - MK 학교

51 선교사 기도제목&선교회 소식

58 Universal Care 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Prologue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정진호

월드와이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연세U치과 원장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청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스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스라 하고”

(에스겔 16 :4~6)

1993년 여름 태국 북부 소수 민족으로 갔던 Vision Trip에서 주님은 저를 단기 의료 선교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통통 부은 아픈 팔에서 고름을 짜낼 때 울부짖던 산족 남자의 소리는 저를 깨우는 소리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진로의 고민 가운데, 평생 치과의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새내기 대학생에게 주님은 찾아 오셔서 평생토록 처처에 있는 선교사들을 돋는 단기 사역자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2006년 치과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유예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원 3개월 만에 첫 몽골 단기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던(삼상 3:7)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 번이나 부르셨지만, 알아 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 가곤 했습니다.

2009년에 제게도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선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 ‘내가 곧이 선교회까지 만들어 가며 선교를 해야 하는가?’라는 지극히 타당한 이유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시기에 세 분의 목사님이 선교회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이 지금 우리 선교회 상임고문이신 황필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지만, 일단 시작이나 해보자는 맘으로 그 해 6월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Universal Care 선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열방과 함께 북한 땅을 바라 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맘 속엔 북한은 열방 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교회를 통하여, 여러 강사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북한은 한민족이 이슬람을 뚫고 이스라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영적인 장벽이었습니다. 김일성 일족이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 결국엔 에스겔서 5장 10절의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 먹으리라’는 우상숭배의 징벌이 가득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며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 남은, 바로 그 ‘남은 자’들과 함께 그들은 화살촉이 되고, 우리는 활과 활대가 되어 이슬람을 향하여 나아 갈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높아 가고 언제 어디서 핵미사일이 날아 올 지 모르는 이 시대에, 주님은 북한 땅에 남겨진 지하교회를 마치 핏덩이로 길가에 던져진 아이처럼 보게 하셨습니다. 결코 그 자신을 위해 단 하나의 보살핌도 받을 수 없었던 그 아이 곁으로 우리 주님은 지나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더라도 살아 있으라!” 그리고 재차 다시 “너는 피투성이더라도 살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마치 그것은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울부짖음처럼 제 귀에 들려 왔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Live!”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제 숨이 끊어 질 듯 버티고 있는 북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다시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주시겠다며 살아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배반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그대로, 지금 그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명운이 달려 있는 중요한 시기에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북한을 향한 부르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감격하고 현신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의 현신과 현신이 모여 이 민족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제15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부르심 그리고 獻身

드릴헌 몸신

“북한과 열방을 향한 부르심에 감격하고
헌신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사: 이삭 목사(모퉁이돌 선교회)

찬양: 와이즈맨 워십 선교단

일시: 2013년 3월 16일 (토) 오후5시

장소: 월드와이드교회 3층 요셉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출구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인이라” (이사야 61:6)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삭 목사

모퉁이돌 선교회

오래 전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 만난 청년 하나가 컵에 물을 떠 주었습니다. 그 병에 '이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고 오래삽니다-김일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향해 "선생, 이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고 오래삽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권하는 말을 듣고 "그게 아니라네, 생명은 조물주에게 달렸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냥 사용하면 거부 반응을 나타낼 것 같아 돌려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알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 청년을 보니 무심코 내뱉은 자기 말로 인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누르며 살아왔을까? 얼마나 부르고 싶은 말이었을까? 단 한 번만이라도 소리 내어 부르고 싶었던 이름 '하나님!' 실수로 내뱉은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분명히 그의 부모님이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북한 땅에 복음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갸가 있는 동안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갸가 있는 동안은 안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휴전 이후 계속 그런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갸가 있는 동안은 안된다구?" 이제 아직 서른도 되지 않은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이 북한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저는 바울의 선교 중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가 원수 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복음은 원수들에게까지도 전해져야만 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눈물과 겸손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간계를 통한 시험을 받고도 그것을 다 참고 주님을 섬긴 것을 들려줍니다.

둘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가르칩니다.

셋째,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뒤 바울사도는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가야만 하기에 마음에 평강과 기쁨으로 떠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지만 '가야만 한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선교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가야하는 길입니다.

누가 북한선교를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통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북한에 복음전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라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무익한 종'이삭

부르심그리고 獻身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현신들

황필남목사
몽골인 선교사
Universal Care 상임고문



서론: 27세때 신학교 시험을 치루는데, 큰 용지 한장을 주며, “**소명과 사명**”에 대해 논술하라!고 나온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며, 사명은 그 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행해야 할 응답이며, 반응 그리고 감사의 현신인 것이다.

우리집안에는 세 아이들이 있다. 엄마의 부름에 따라 둘째 아들이 ““예, 여기 있어요 라며 제일 먼저 달려온다. 그리고 첫째는 그의 이름을 부를때 가장 조용하면서 치밀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셋째는 가장 늦게 움직여서 때로는 부모가 화가 날 때도 있다. 응답과 행동이 느려 터진다. 그러나 시간이 다 된 것을 알

면 그때서부터 뛰기 시작한다. 세 자녀들을 보면서 나는 종종 나 자신을 생각해 본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각자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1.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인류 창조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종종 불러 그릇처럼 사용하시는 것도 설명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창 2:15~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직업과 지경과 땅과 모든 창조물들을 주시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것과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을 주셨다. 창 3:9절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calling),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다. 창 4:9,10절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셨다. 창 18:9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창 16:8절에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출 3:4절에 하나님은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다. 창 22: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라고 불렀다. 여호수아 1:2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들과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심과 사명**을 동시에 주셨다. 삼상 3:10절에 “사무엘아사무엘아” 3번째 부르신후에 그는 그의 소명을 발견했다. 하나님은 제사장(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이지 않을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죄악에 붙잡혀 있을 때, 사무엘을 불렀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금이후로 인간을 창조하여 보내셨고, **부르셨고(calling)**, 평생을 그분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Contribution)하려는 기회를 주셨다.

2. 성경에서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인 헌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구약 성경에서의 부르심과 헌신

구약성경을 보면 정말 다양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Calling)앞에 다양하게 응답하여 헌신(contribution)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하면 한물 간듯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할머니를 부르시기도 했고, 더더욱 폐물이 되어 가던 80세 모세를 불러 쓰시기도 했다. 하나님은 나이나 신분이나 가난한자나 직업에 상관없이 부르셨고, 헌신하면 그 즉시 혹은 시간을 두었다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곤 하셨다.

(1)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한 헌신

아브라함은 75세, 그의 아내는 65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고 자리를 훌훌털고 일어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원망 없이 갔었다.

(2) 부르심에 억지로 응답한 헌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에 “보내실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길 싫어했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80세의 나이에 불려가서 40년동안 일한후에 120세 죽는날까지 하나님께 헌신한 고령의 종이 되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3) 부르심에 도망쳤다가 헌신한 예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부터 싫어하고 분노가 일어났다.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원수의 나라에 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앞에요나는 이해가 안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바람들과 파도를 일으켜 다시 그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끌고 갔었다. 도망갔다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생활까지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했던 요나를 만난다.

(4) 부르심에 훗날에야 깨닫고 헌신한 예

한편 에스더는 아름다움과 청순함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기까지 여성으로서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라는 삼촌 모르드개의 제안을 받고는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하지만 삼촌의 기도와 권면과 강권앞에 그는 하나님앞에 자신의 운명과 생명을 바쳐 헌신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원수들을 진멸하는 일을 감행했다.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헌신을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서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 번이나 받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스승이자 멘토였던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서 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에 대한 응답을 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만 시간이 지난후에야 혹은 한 침 뒤늦게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5) 며느리, 신앙인의 어머니와 하나님께 행했던 현신

아내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이방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자신을 드렸던 여인이 있다. 바로 모압 국가의 룸이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를 10년간 따른 후에 충성되고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 1:16, 17)

2) 신약 성경에서의 부르심과 현신

(1) 즉시 현신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직업의 현장에 찾아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와 배와 그물등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며 현신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다. 마태도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즉시 일어나 주님께 현신했다.

(2) 배운후에 현신한 마가, 누가, 디모데

그러나 마가나 누가, 디모데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배운후에 현신하였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고 교육 받은후에 현신자가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 교육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바울 사도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임을 권면했다. 잘 배우는 사람들이 또한 잘 가르치게 되어 있다.

(3) 따라 다니며 체험한 후에 현신한 사람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사도들도 예수님이 함께 다니며 주님의 삶과 교훈과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을 예수의 증인들로 세웠다.

여호수아가 40년간 모세를 따라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체험했고 그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군으로 현신하였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다녔고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다녔다.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을 따라 다니며 배운 후에 훗날에 훌륭한 현신자들이 되었다.

(4) 주님의 음성과 현상을 보고 현신한 베드로 바울

유대인의 명성을 한방에 날려 보낼 수 있는 위험했던 당시의 교제인 유대인-이방인과의 교제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이후였다.(행10:11~16) 바울이 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유럽에 선교 할 수 있었던 것도 마케도냐인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이후였다(행 16:8~10).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중에, 환상중에 천사를 보고 음성을 들은 이후였다(행10:3~5).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이처럼 기도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본 사람들은 성경 역사 가운데 민족의 장벽을 뛰어 넘어 다른 대륙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2. 선교 역사에서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

한국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미국인 선교사들과 그들의 한국에서의 헌신적인 사역들을 살펴 보자. 자료는 풀러신학교선교학 박사이자 본인과 함께 베지니아 크리스챤 유니버시티에서 선교학 교수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손상웅 박사의 연구 자료이다.

1) 서양인들의 부르심과 헌신들

첫째, 다니엘프랭크린히긴스

1882.9.15 미국 일리노이스 주 월 카운티 내 졸리트에서 태어나다.

1890. 류마티즘으로 고생하다.

?조리에트 소재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다.

1900. 고등학교 졸업하다.

1901-1902 시카고 대학에 다니다.

1902-1906 일리노이스 주립대학을 졸업하다.

1902.겨울. 어바나 캠프에서 회심하다

1902.겨울. 어버나 감리교회에 등록하다.

1906-1907.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사 (BA)를 받다.

1907-1908. 위스콘신 대학원에서 석사(MA)학위를

받다.

? 위스콘신 메디슨 감리교회에 등록하다.

1910.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가르치다.

1910.1.16. 에텔니콜스테일러와 결혼하다.

에텔니콜스테일러

1883.6.16 일리노이스 주 벨콩트에서

태어나다.

? 와체카 제일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다.

1909. 일리노이스 주립대학을 졸업하다

1910.10.6. 조선으로 향하다.

1910-1912. 송도 한영서원에서 교사로 사역하다.

? 남동생 맥스 브라운 히긴스가 송도에 와서 건축하다.

1911.4.2. 메리 엘리자베스히긴스가 태어나다.

1912. 선교사를 사임하다.

1913-1914. 수안 금광에서 사역하다.

1913-1914. 에텔테일러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사역하다.

1913. 조선 양치식물에 대한 글을 발표하다.

1914.1.29-1917 중국으로 가다.

1916.2.27. 중국 북경에서 엘리놀릇히긴스가 태어나다.(6년간 한국과 중국에서 헌신하다.)

1917-? 영국에서 거주하다.

1919.12.3-1920.1 이짚트 카이로에서 영국회사 S. 피어슨앤드 선 회사에서 활동하다.

?- 미국 콜로라도 주 러브랜드로 이주하다.

? 러브랜드 감리교회 평신도 전도사로 사역하다.

? 광산 사역과 지질학 강의에 몸담다.

1930.3.21. 향년 47세로 테네시 주 낙스빌에서 소천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둘째, 캐트린 M. 에스텝 선교사

1876.12.26(27, 29) 미국 미조리주 킹스톤에서 태어나다.

? 킹스톤 교회에 다니다

1879- 같은 주 해밀頓으로 이주하여
해밀頓 교회에 다니다.

1891.5.3. 아버지 윌리암 M. 에스텝이 소천하다.

1895. 캔사스 주 로렌스에 거주하면서
로렌스 교회에 출석하다.

1903.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아즈버리
간호 훈련학교를 졸업하다.

1910. 맨하탄에서 간호사로 재직하다.

1910-1915 뉴욕 주 샷레이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1910-1915. 샷레이 감리교회에 출석하다.

1915.2.9. 샷레이 감리교회에서
송별 파티를 하다.

1915.2.17. 송별 샤워를 하다.

1915.4. 내한하다.

1915-1922.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다.

1916.12.30. 어머니의 건강악화로 도미하다.

1917.10.11. 어머니 마르타에스텝이 소천하여
미조리 주 웨더비 공원묘지에 안장하다.

1917.10.3. 여권을 신청하다.

1917.10.23. 캐나다 벤쿠버에서 'эм프레스 오브
아시아' 선박을 타고 **내한하다.**

1918.3.12. 서울 주재 미국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하다.

1918.8-1919.1.10 시베리아 **의료선교팀**에 합류하다.

1919.4.2. 행방불명 기사가 신문에 실리다.

1919.5.30. '샤트게이 레코드'에 안전하다는
기사가 실리다.

1922-1940. 청주에서 사역하다.

1924.1.30 여권을 신청하다.

1924-1925 첫 번째 안식년을 가지다.

1925. **내한하다.**

1927.1. 시골장날 진료소 사역에 대한
글을 기고하다.

1932-1933. 두 번째 안식년을 맞아 도미하다.

1933. **내한하다.**

1940. 일제의 강제출국으로 도미하다.

(25년간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

1940.10.21. 뉴욕 주 펠햄 소재 유거노 기념교회
부인 선교회에서 보고하다.

1943.3.3. 뉴욕 주 쿠버스타운 제일장로교회에서
조선과 조선 관습에 관해서 보고하다.

? 캘리포니아 두아르테 소재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안식관에서 거주하다.

1960.9.2. 소천하다.

셋째, 제이슨조지퍼디 선교사

1897.3.18. 미국 오하이오 주 사르디아에서
태어나다.

? 사르디아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다.

? 테네시메리빌로 이주하다.

1915-1919. 메리빌 대학을 졸업하고 문학사
학위를 받다.

1916-1919. 대학 기관인 목회회, YMCA 등에서
활동하다.

1918.6.5. 세계 제1차 대전 징집 서류를 제출하다.
? 해군학교에서 훈련받고 제대하다.

1919-1920 모교인 메리빌 대학에서 영어 역사
담당 교수로 재직하다.

1920.3.31. 메리빌 대학에서 야생 귀리에 대한
강연을 통해 마약 금지를 강원하다.

1920-1923. 프린斯顿 신학교를 졸업하다.

1921.5.8. 메리빌 대학 YMCA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목회로의 소명'에 대한 강연을 하다.

1922 여름. 캐나다의 랄프 코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다.

1923. 미국 북장로교 포츠머스 노회에서

강도사가 되다

1923.5.28. 본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다.

1923.6.4. 오하이오 주 피쿠아에서

에밀리 M. 몽고메리와 결혼하다.

에밀리 M. 몽고메리

1899.2.11. 미국 오하이오 주 뉴왁에서

쌍둥이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다.

? 뉴왁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다.

1917. 메리빌 대학에 입학하다.

1921. 우스터 대학으로 전학하여 졸업하다.

1921-1923. 오하이오 주 시드니에서 교사
를 역임하다.

1923.6.11 여권을 신청하다.

내한하다.

1923. 청주 선교부에 부임하다.

1923. T. 스태니솔타우 선교사와 함께

50개의 교회를 담당하다.

1924.7.15 장녀 마르다 루이스퍼디가

청주에서 태어난다.

일생을 조선에서 선교하기로 하다

1925.3. 4중창 연주자로서 클라리넷을 연주하다.

1925.10.15. 장남 존 C. 퍼디가 서울에서 태어난다.

1926. 32개 처의 교회를 담당하다.

1926. 조동교회를 개척하다.

?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장티푸스로 서울에서 소천하다.

1926.5.19 밀러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퍼디 선교사의 가족에게 편지를 쓰다.

1926.6.13 몽고메리 선교사가 두 자녀와 함께

도미하다.

1926-1929. 피큐아 제일장로교회에서

사무원 및 유치원 디렉터로 사역하다.

1929-1937 오하이오영스타운 제일장로교회에서

기독교 교육 디렉터로 사역하다.

1932. 성경학교 건축을 위해

몽고메리 선교사가 내한하다.

1932. 여름. 여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선교 강의를 하다.

1933.1.4. 제이슨 G. 퍼디 기념 성경학교로

명명하다.

1935.8-12. 조선과 중국을 방문하다.

1936.5. KMF에 한국 교회의 영감을 기고하다.

(13년간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

1937?- 펜실베니아 주 디투스빌 제일장로교회에서

기독교 교육 디렉터로 사역하다.

1992.6.6. 몽고메리 선교사가 향년 93세로

소천하다.

1986.11.6. 조동교회 성전 봉헌 및 부례선

선교사 선교 유적비 제막하다

넷째, 윈레이스 제이 앤더슨 선교사

1890.6.18. 미국 미네소타 주

에덴 프레이리에서 태어난다.

1914. 맥아레스터 대학을 졸업하다.

1917. 샌프란시스코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다.

1917.6.5. 세계 제1차 대전 징집서류를 작성하다.

1917. 목사 안수를 받다.

1917.8.7. 릴리안엘리자베스비디와 결혼하다.

릴리안엘리자베스 비디

1892.8.15 네브拉斯카세드론에서 태어나다
1898 이전. 캘리포니아 주 휴티어로
이주하다
1915. 옥시덴탈 대학을 졸업하다.
? 버클리 가주대학 대학원을 졸업하다

1917.8.7. 여권을 신청하다.

1917.9.1. 한국을 향하여 샌프란시스코를 이향하다.

1917.9.26-1922 안동에서 사역하다
? 비디 선교사가 경안 여성 성경학원을
설립하고 교장을 역임하다.

1919.6.12 도로시엘리노앤더슨이 안동에서
태어나다.

1920.1.25. 도로시 E. 앤더슨이 안동에서 사망하다.

1921.2.5. 기독 청년 면례회를 안동에서 조직하다.
1921.6.7. 경북지방 청년 면례회 연합회를
창립하다.

1921.11.4. 셜리 L. 앤더슨이 대구에서 태어나다.

1921.12.20. 경안노회가 조직되다.

1923-1924 안식년을 갖다.

1923-1924. 퍼시픽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1924. 서울 선교부로 전임하다.

1924.12.2-5. 만국 기독교 청년 면례회
제1회 전선대회를 피어선 성경학교에서 개최하다.

1924-1941 피어선 성경학원에서 사역하다.

1925-1930. 피어선 성경학원

제9대 원장으로 활동하다.

? 피어선 성경학원 제11대 원장으로 재직하다.

1930.8.5-11 독일 베르린에서 개최한
세계 면례대회에 참석하다.

1931.6.6. 안식년 송별음악회가
피어선 성경학원에서 개최되다.

1934. 음악동호회를 결성하다.

1934.9.1-6 기독 면례회 제1회 4년 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다.

1934-1941. 기독교 서회에서 사역하다.

? 비디선교사는 여성 선교사회 회장,
정신학교 성경교사, 여성 성경반 조직 인도하다.

1934.11. 릴리안 E. 비디 선교사

소천하여 양화진에 안장하다.

1936.9.8. 헐미 A. 루이스와 재혼하다.

헐미 A. 루이스

1903.8.14.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피컨스에서 태어나다.

1924 렌더 대학을 졸업하다.

1931 선교사 자녀학교 교사로 사역하다.
1935.6.12 서울에서 개최한 왕립 아시아
협회 조선 지부 티 타임을 돋다.
1935. 도미하다.

(19년간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했다.)

1937.12.26. 상해 임시정부 특무대원 황국주의
공작금 유입을 돋다.

1938.6.29. 첫 딸 로라베스앤더슨이 태어나다.

1940.6.1. 강제출국당하여 도미하다.

1942.1.8. 나성 한인장로교회에서 설교하다.

1942-1960 과테말라 선교사로 파송받다.

1945. 알버트앤더슨이 태어나다.

1951.6.19. 안식년을 갖다.

1957. 은퇴하다

1958-1960. 스리리버 장로교회에서 목회하다.

1960.12.5. 앤더슨 선교사가 소천하다.

1970.11.26. 루이스 선교사가
존 알버트맥앤리스와 재혼하다.

1979.10.12. 존 A. 맥안리스가 소천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1991.11.19. 루이스 선교사가 캘리포니아 주 두아
르트에서 소천하다.

1949.2.20. 웨스터에서 언약정통장로교회와
브라이튼 감리교회의 주관으로
고별예배를 드린다.

(2년동안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

다섯 번째, 프로렌스브라언트 핸디사이드

1957.9. 핸디사이드 기념 장학 기금을 조직하다

1919. 뉴욕 주 와이오밍카운티왈소에서 첫째이자
장녀로 태어나다.

1934.12.11. 회심하다.

1938.9.28. 친구 신부 환영식에 사회를 맡다.

1941. 봄 선교사로 소명을 받다.

1941. 가을. 무디 성경학교에 입학하다.

1944-45. 선교사 지원하다.

1945-1946 알칸ساس 주 오잘크마운틴스 지역에서
내지 선교 사역을 담당하다.

1947.1. 정통장로교회 선교사로 임명받다.

1947.9.23-24. 패스코 목사를 방문하고 고등학교와
8학년 학급에서 간증집회를 갖다.

1947.가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재학 한국 학생으
로부터 한국어를 배우다.

1948.3.16. 한국을 향해 고향 웨스터를 떠나다.

1948.4. 내한하다.

1948.4-1949.1. 미국 육군 문관 타자수로 취직하다.

1949.1.14 부산 선교부에 부임하여 부루스헌트
선교사 사택에서 거주하다.

1949.2.7. 월, 아픔을 호소하다.

1949.2.8. 화. 헌트 선교사 사택에서 간호받다.

1949.2.12.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던 중

대구 근교 경부선 기차에서 소천하다.

1949.2.16. 서울 남대문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다.

위에서 5명의 단 한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선교사들의 부르심과 한국 선교를 위한
준비와 희생과 헌신을 보았다. 우리는 이런 사
랑과 선교의 빛을 지고 있다. 우리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던 주님을
위해 소명을 발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
의 사람들이 되자.

2) 우리 부부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

나는 26세 때 목사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2년 후인 28세 때 선교사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준비하여 31세에 목사와 선교
사가 되어 선교지로 출발했다. 26년 동안 부르
심을 모르고 살았고, 이후 26년 동안 부르심을
따라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다.

결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
하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부르심그리고 獻身

아내와 함께 한 선교 인턴 훈련

정태화 목사

러시아 연해주 선교사



훈련기간

: 2000년 1월 21일 - 10월 4일까지

훈련장소

: 러시아 연해주 나홋까 장로교회
(김영곤 선교사)

2001년 8월 경향교회의 파송을 받아 러시아 연해주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주된 사역은 미전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인데 지금까지 여섯 곳에 교회를 세웠고 두 곳을 더 개척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처음에는 혼자 전도를 다녔지만 지금은 현지 사역자들과 직분자

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으며 처음 개척한 두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했고 처소교회를 세우는 센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3년의 선교사역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꿈꾸었던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와 함께 받았던 ‘선교 인턴 훈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인턴 훈련을 받게 된 이유는

1995년부터 2000년도 까지 기회만 되면 단기 선교를 떠났다.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의 선교모습을 보면서 세계 속에서 일하

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과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얼마나 광대한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았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공산권이었던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사역에 작은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

선교현장을 보면서 선교의 위대함도 보았지만 계속된 영적인 전투에서 피 흘리고 아파하는 선교사들의 고통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열매와 영광은 크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외롭고 아프고 힘든 길이었다.

그때 다녀본 지역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 몽골이었다. 선교 5년차 된 선교사를 만났는데 벌써 영적인 탈진을 겪고 있었다. 정치, 경제, 치안이 극심할 정도로 불안 했고 시장에는 한국 사람이 먹을 만한 식자재를 찾을 수



가 없었다. 울란바타르는 고도가 2천미터인데 우리나라 설악산 꼭대기와 같은 높이이다.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순교이며 이러한 선교지에서 건강을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내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간다면 선배 선교사들이 겪은 이러한 충격을 똑같이 겪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화 충격과 탈진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 때 하나님은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특히 부부가 같이 선교훈련을 받아야 됨을 알게 하셨다.

그 당시 한국에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선교 훈련과정을 만들어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훈련을 받는 것 보다 선교현장에서 10년 이상 된 선배 선교사에게 실질적인 삶과 사역을 배우는 인턴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선교현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구하고 싶었다. 선배 선교사로부터 실패와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다.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켜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적인 현장을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 당시 교단에서도 선교 후보생을 선교현장에서 인턴으로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보내주는 자도 없는데 무작정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서 혼자 힘으로 훈련을 받으려 나온 것이다.

선교인턴 과정은

특별한 프로그램의 훈련이 아니었다. 선교지에 처음 온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대로 했다. 말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은 언어 연수였다. 나흘까에는 외국인이 배울 수 있는 언어 연구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선배 선교사가 했던 방식대로 이곳 초등학교 1-3학년을 가르치는 현지 교사에게 개인 교습을 했다. 일주일에 3일 공부를 했는데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선생님에게 외국인이 할 수 없는 발음을 정확하게 배웠다. 수업은 문법, 회화, 찬양으로 나누어서 배웠고 아내는 러시아로 찬양을 배우는 것을 제일 좋아했다.

교회 사역으로 청년부를 맡았다. 임원을 세우고 조장을 만들어서 조장이 성경공부를 가르치게 했고 한국의 찬양을 통역자에서 번역하게 해서 찬양을 가르쳤다. 청년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심방 집사님과 함께 모든 청년들을 심방 했다. 청년부를 맡고 있는 동안 두 번의 전도 집회와 두 번의 수련회가 있었다. 주일 저녁예배를 인도했고 교회의 보고서나 행정적인 일들을 도왔다. 선교지에서는 선교사가 손수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선배 선교사를 도우는 일은 땀을 흘리는 노동의 일들이었다.

선교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곳 러시아에서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연구했다. 전기가 없을 때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밥을 해먹어야 하는지, 동물을 무서워하는 아내가 아파트 입구에 삶을 터전을 잡고 있는 고양이와 개들을 어떻게 피해서 다니는지, 도둑과 강도가 많다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지, 길거리에서 중국 사람이라고 놀리는 아이들의 장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선교지에서 구할 수 없는 기본 양념들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아껴서 음식을 만드는지 등, 타문화권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선배 선교사가 10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했는지 그 과정들을 배우기 위해 많이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했다.

처음 선교지에 왔을 때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상에 언어도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훈련이 마침 때가 되어서는 혼자 러시아에 살아 갈 수 있을 만큼 러시아 사회를 알게 된 것이다.

그 후, 통역도 없이 도와주는 선배 선교사나 현지 사역자도 없이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사역을 혼자 힘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인턴 훈련 때문이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선교인턴 훈련 결과는

선교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사역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가지는 시간이었다.

단기 선교는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는 시간이었고 선교인턴을 통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선교사역을 위한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 때 계획하고 목표를 정했던 사역들이 많은 부분 준비가 되었고 벌써 이루어진 사역들도 많다.

러시아에서 받은 선교 인턴 훈련은 선교지에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습득하는 귀중한 훈련이었고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싸워야 할 적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시간이었다. 부족하지만 하면 된다라는 용기를 얻는 귀중한 훈련이었다.

러시아 연해주는 선교후보생들이 선교인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후보생들에게 선교인턴 훈련을 꼭 권해주고 싶다.

부르심 그리고 獻身

선교로의 부르심 그리고 헌신

김우섭 목사

러시아 로스톱 나 다누 선교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라는 말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에 근거하여 파생된 표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선교는 모든 신자들의 지상 과제임을 각인시켜줌과 동시에 우리를 행동케 하는 생생한 표현이라 마음에 무척 와닿는다. 그렇지만 주님의 선교적 명령 앞에,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의 헌신이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선교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함에도 말이다.** 실은 선교를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 가는 헌신이 필요하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과 거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더 가깝게 관계를 맺고 있는 곳에 관심과 사랑을 쏟는 자기중심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거리적으로나 또 혈통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 대상인 선교는 아무래도 관심 밖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금번에 발간되는 선교지를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더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 지기를 기대해 본다.

선교로의 부르심 부분에 대해 짧게 글을 적고자 한다. 선교로의 부르심은 참으로 다양하다 하겠다. 어떤 이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선교에로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방인 선교를 위해 특별히 부름 받는다(행 22:21).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직접적인 선교에로의 부르심보다는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의 부르심도 있다. 의사 누가는 드로아에서 사도바울의 2차 선교 여정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성경 학구하고 있다. 어쨌든 누가나 디모데, 실라 등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역함으로 선교로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선교는 어느 특정한 이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모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28:10) 라고 하시면서 세계 선교를 명하셨다. 그리고 이 명령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모든 제자(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셨을 때, 이 명령 속에는 나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나가는 것과 보내는 것이 동일하게 중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도록 명하시어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나가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온전한 선교를 보게 되는 것이다(행13:2,3). 오늘 날도 주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을 선교 사역으로 부르신다. 어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일찍 선교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는다. 이들은 선교 사로 현지에 나가 일하기 전 여러 가지 필요한 자질을 구비할 수 있게 된다. 언어와 선교의 접촉점이 될 전문적인 기술, 그리고 신학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을
선교사역으로
부르신다.

등을 말이다. 참으로 바람직한 선교사로서의 준비다. 한국도 이제는 세계 2위 선교사 파송 국가로서 이러한 선교의 바람직한 모습들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지만 뒤늦게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자처럼 갑자기 선교로 부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실은 필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실은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인데, 선교적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데 너무나 무지하고 더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로의 순종에도 얼마나 주먹구구식이 많으며, 수박 걸핥기식의 선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경우를 보라.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승천 전에 이미 선교를 지상 최대 명령으로 주셨다. 그렇지 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보자기환상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

이와 같은 반복된 선교의 명령에도 사도 베드로의 선교적 마인드는 여러 해가 지나도 크게 나아진 바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유대 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당시 소아시아에 속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사역을 통해 보게 된다.

그가 갈라디아에서 이방인들과 식사 중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내려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는 갑자기 식사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게 된다. 이유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한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들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갈 2:12). 바나바까지도 그런 생각에 사로 잡혀 자리를 피했으니 선교적 사명으로 가득찬 바울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다.

나 또한 중생이후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 선교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기때문에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기까지 부지런히 이를 알리고 선교적 도전을 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선교 14년 차인 나로서 지나간 나의 선교로의 헌신 과정을 짧게 언급하면서, 나보다 더욱 나은 많은 고국의 믿음의 후배들이 선교로 헌신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는 갑자기 선교사로 헌신하게된 경우다. 청년의 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터라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특별한 건강상의 어려움에 처했던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쳐 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서원했던 터라 몇 년후 신학을하게 되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말은 자주 들어 보았지만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그저 다른 사람의 일로만 느껴 졌을 뿐이었다. 신학원 재학 중 카자스탄과 몽골, 일본 등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겨우



선교지의 쉽지 않은 상황과 선교사님들의 노고는 충분히 공감이 갔으나, 여전히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위성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직접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이들은 특별한 은혜를 한 번 더 체험한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교를 외칠지라도 참으로 선교로 헌신하기까지는 더디고 또 무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내가 겪어온 바도 그렇다. 주변의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선교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선교를 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학원을 졸업하고도 나는 여전히 선교에 대해서는 눈 뜨지 못했고,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도 분명치 못한 상태였다. 그런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선교로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어느 한 날,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중앙 아시아의 선교지 교회를 순방하게 되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선교지에서 돌아 오신 목사님께서는 아침 교역자 모임에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셨다. 중앙 아시아 카자스탄의 한 지역에 사역자가 꼭 필요한데, 교역자 중 한 명이 그곳에 선교 사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날 아침 나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다.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나는 그날 아침 선교로 헌신하게 되었다. 실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 많고, 무엇보다 많은 기도가운데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내가 과연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선교사로 나가 사역을 할 만한 자격은 갖추어져 있는지, 과연 선교사로서 내 자신이 적합한지 등등.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부정해 버린 채 하루 아침에 선교를 나가겠다고 결정해 버린 것이다. **정말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나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무식이 담대하다'는 말이 당시 나에게 꼭 맞았다. 만약 이것 저것을 다 따져 보고 선교사로 나가겠느냐고 물었다면 아마도 선교사로 헌신할 수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내 생각이다. 물론 선교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날 아침 나의 결단을 기뻐 하셨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나는 그곳으로 선교사가 되어 떠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갔으며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선교에로의 부르심은 선교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자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준비된 자는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선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선교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으며, 선교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최대, 최고의 명령이다. 또한 동시에 선교는 우리가 타인에게나 타민족을 향하여 줄 수 있는 지상 최대의 복을 주는 일이다. 이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치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부디 이 귀하고 복된 일들에 헌신하는 이들이 왕성하게 일어 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부르심 그리고 獻身

부르심과 선교적 소명

강다니엘 선교사

갈보리 선교교회 담임

HIS 선교회

전 C국 선교사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행전13장9절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요구하다)이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방식 이름(작다)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은 바울처럼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사역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시작이 되었을 때 그의 이방인 이름 바울로 성경을 통해 소개합니다. 이 의미는 바울이 개종했다는 것에 대한 알림입니다.

바울을 향한 일방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은 당

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그의 전도가 이방인들에게 행하여 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행22:17-21) 바울은 환상을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회심에서 선교까지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과정은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드슨테일러의 경우는 17세가 되어 회심을 경험합니다. 1849년 여름 그의 어머니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멀리 가고 안 계신 때 그의 아버지 서재에서 할 일없이 빈둥거리며 이 책 저책을 뒤져보다가 작은 기독교 서적 하나를 발

견합니다. 영적으로 감동 깊어 보여 그 책을 집어 든 것은 처음은 아니었지만 재미로 그 책을 읽어나가다가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기쁨과 확신의 빛을 비추셨다. …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주후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에게 그간 그의 회심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크게 놀라지 않고 2주전 그녀의 친구 집에서 자기 아들 허드슨테일러를 위하여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확신이 설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간증을 오히려 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머니와 아들에게 동시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허드슨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을 그의 일생에 계획을 하고 선교를 위하여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 위한 결심은 그의 삶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은 그가 의사가 되어 일 할 때 받지 못했던 임금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사람을 찾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께서 그 밀린 임금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만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가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일한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연습을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가난에 처하게 됨으로 매일 사과 몇 조각으로 그의 삶을 유지하는 정도로 살게 되고 결국 영양실조가 와서 몸은 쇠약해지게 되었고 치료하던 환자

로 부터의 감염으로 인해 목숨까지 위태해지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의 이러한 일들은 중국선교사로 되기 위한 사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통하여 미리 준비하는 선교적 자세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허드슨테일러는 1853년 9월 21세의 나이로 중국을 향해 그의 고향을 떠나 다음해 봄 상하이에 도착을 하여 그의 선교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경우처럼 그의 사역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어려움을 겪은 그의 생활은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말 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을 찾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허드슨테일러의 고립과 외로움은 사역지를 내지로 옮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복음의 행진은 많은 선교사들이 편한 상하이에 머물기를 원했을 때 가난한 중국인들을 위한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국내지선교회를 만들어 중국인화 되어 큰 선교사역을 이룹니다.

선교지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3년 미만의 단기 선교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때로는 1년도 채 안되게 사역을 하시다가 나가시

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처음 사역지에 들어오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선교지에 도착하신 사역자들을 위하여 그곳에 잘 정착하도록 돋는 일들을 얼마동안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집을 구하는 일부터 아이들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돋는 일과 어떤 사역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알맞은 사역을 연결시키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 먼저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먼저 알아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받으신 사명과 앞으로 사역의 방향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몇 년 전부터 중국에 사역하기 위하여 현지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훈련을 잘 마치고 언어까지 습득을 해서 오신 경우가 있고 어떤 선교사님은 그냥 응답만 받고 마구잡이로 들어오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훈련을 한 상태에서 사역지로 오신 분의 경우는 적응하시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선교사님들의 경우는 늘 선임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시간까지도 줄여가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잠깐의 돌봄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준비 없이 들어오신 경우의 선교사님들은 오랜 시간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사명에 대한 물음도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

르심으로 인해 목회를 잘 하고 계시던 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분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실패해서 선교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당연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들어오신 분과 후자의 경우는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선교지에 들어와서도 이 사역이 내사역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사역에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장기간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 존경을 표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장기선교사가 되어 있는 것은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소명에 대한 것들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선교지를 한바탕 휘젓고 많은 문제를 남기고 사역지를 떠난 단기 선교사의 경우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알 수도 있습니다. 큰 사역을 했는지 아니면 사역의 폭이 크지 않았는지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단 한명의 현지 사역의 대상자들을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참된 사명자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는 많은 사역을 폭넓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의 이슬람 선교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초창기 선교사의 숫자와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일대일 수준밖에 되지 못합니다. 터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전체 사역하는 선교사 숫자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몇 년 사역을 해도 단 한명만 회심을 겨우 시킬 수 있는 곳이 그 지역인 것입니다. 때론 터키 말라티야 순교사건을 보면 그들이 회심한 것 같아도 위장한 모습이었음을 보면 정말 숫자로 가늠하는 선교적 판단은 다소 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없이 들어온 선교사의 열매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때로는 사역지에서 버티기 위한 사역이다 보니 물질과 많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원하는 교회와의 문제들과 현지인 교회와의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의 반인륜적인 문제들이 과연 그들이 선교사가 맞는지를 의심할 만큼 물을 흐리게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 그들이 주님 앞에서 참된 회심을 한 사람들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들입니다.

저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제게 사명으로 있었음에도
저는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정을 겪어야 했다.

진정한 소명자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멀시도 주님의 복음아래 다 포기 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의 문화적 충격만도 상당히 큰 것인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제게 사명으로 있었음에도 저는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권유받아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응시를 한 후에도 답안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스스로를 탈락

시키게 한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사역의 현장으로 이동 시킨 것처럼 제 경우도 현장에서 주님 앞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허드슨테일러는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늘로부터 받은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마5:3,10) 바울은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고 실컷 매를 맞아 고통스러웠던 일을 겪고 때론 죽음 문턱까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준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드슨테일러의 경우는 8살난 그레이스테일러와 얼마 후 다섯 살 새미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를 선교지에서 잃는 아픈 과

에 무릎 꿇는 일로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입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은혜로 충만하지만 당시 주님의 부르심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걱정이 이렇게 표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한 후 자리를 지킨 제게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고 전 다만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느낀 것 밖에 없습니다. 때론 주님의 손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제 손을 이용하신 것과 발이 필요하실 때 제가 발을 내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드려 대신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일들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그를 위한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선교강국으로 한국이 슬로건을 내 걸고 10만 선교사 파송을 선포한 이래 한국의 선교는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을 맛보게 됩니다. 교회의 대형화에서 선교의 대형화 복음의 대형화는 가장 낮은 자인 가난한 과부와 어린아이 그리고 연약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합리주의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며 사령부식 선교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선교와 실패한 선교는 주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에는 고난이 꼭 따라 온다는 것이 분명한 일인 것처럼 한국교회의 선교는 순탄하지 않을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선배 선교사의 모습 속에 우리는 찾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선교하는 대한민국은 고통과 혼란이 내부에 발생할 것입니다. 하는 사역에 악한 영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선한 일에 이를 반대하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은 우리를 힘들고 맥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저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그들의 편한 환경을 포기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헌신한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빛진 대한민국은 이젠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해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힘들어서 선교를 포기하는 교회와 사명자는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좀 불편한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너무 편하면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전! 70세 실버선교사도 지난 2012년 시카고 세계 선교대회에서 만남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부르심의 선교, 헌신,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은 무료로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물입니다.

부르심 그리고 獻身

부르심 그리고 헌신



엄천영목사

GBT 선교사

성경이나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부르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기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은 즉각적인 것에서부터 심사숙고, 그리고 주저하는 것에까지 모습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 중 몇 명은 즉시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을 뒤에 남겨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와는 다르게 모세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시나무가 불타는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처음에는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피력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응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며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르심과 헌신을 이야기할 때 인격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헌신을 이야기할 간과해 버릴 수 있는 이 전제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과 역할을 맡기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전체를 보기보다는 그 중 한 부분(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분입니다.)만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역할로의 부르심과 더불어 존재의 부르심입니다. 원래는 역할과 존재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 자체가 이 둘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진 그림에 적절한 이름들을 붙여본다면 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된 그림은 꿈을 물어볼 때 잘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이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르심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그 부르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며(우리는 이것을 태어났다라 표현합니다.) 당신의 뜻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존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이 모두가 부르심입니다. 존재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않고 있을 때 역할의 부르심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때까지의 시간, 즉 삶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을 짓지 못하므로 거기에서 오는 자격지심(정도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이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 년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40 년 동안 애굽에서, 그 다음 40 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말년의 40 년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역할의 부르심만을 생각한다면 모세가 80 세가 되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년 40 년에 집중하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의 80 년 동안 모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세는 40 년 동안 애굽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으며,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어떤 역할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존재의 부르심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120 년의 모세의 삶 중 80 년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역할의 부르심을 확인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3 년의 짧은 생애 중 성경은 거의 마지막 3 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30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옮겨 올 때 우리에게 그 80년, 30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무런 역할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상태의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의미에서 헌신은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한 준비와 헌신을 이야기함에 앞서서, 나의 삶, 일상에 대한 준비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르신 분과 응답하는 사람 모두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존재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 특별한 시기에 역할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균형적인 이해가 없는 채로 하나님의 역할의 부르심을 접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지 못한 헌신이란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능력과 위치로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며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해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부르신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 볼 수 있겠다 또는 이건 안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안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대답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고 함께 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안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시도해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강점과 약점이 우리를 밀어 올리기도, 주저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가능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그 분을 알기에 그리고 믿기에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헌신에는 인격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한 믿음이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는 어디에서 길러질까요? 시간 속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입니다. 일상은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복되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큰 흐름은 늘 계속됩니다. 매일 일어나고, 밥을 먹으며, 바로 옆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와 직장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육장에서 우리는 인격을 배웁니다. 즉, 사람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며, 나 자신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는 80년으로, 예수님에게는 30년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차적인 부르심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이미 익숙한(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미처 생각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인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어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드셨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그러한 부분을 문화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세를 고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을 회개와 헌신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회개와 헌신이라 이해하면 어떨까요? 헌신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 보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사고와 가치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헌신은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그들의 사고와 가치 체계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이것이 맞지만 틀린 것이 있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기 전의 우리의 다른 노력이 빠져 있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한 노력 즉, 전도의 노력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과 함께, 어쩌면 이미 전제되어야 하는 노력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직장 공동체와 직업에 대한 노력입니다. 우선 공동체에 대한 노력을 살펴보면, 직장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체계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사랑의 관계,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증거(이것은 내가 다니는 좋은 교회를 소개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나의 일상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의 풍성함이 이곳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에서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싸워가야 할 만큼이니까요.

다른 하나는 직업에 대한 노력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 얻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고민이며 정당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것만 고민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일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고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설과 직업 소명설을 우리가 조금 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고민하게 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각의 방향을 돌려서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여 이전에 우리가

하던 이해를 발전시키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막막합니다. 그렇게 가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기에, 또 현재 그러한 이해와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늦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한국 교회적으로나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의 헌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르심 그리고 獻身

Hello? Africa!

임문규

뉴사운드교회

Universal Care member

컴퓨터 프로그래머



안녕하세요?. 이 지면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저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처음 품었던 때는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전까지 저에게 아프리카란 일반 사람들이 그렇듯 관심 밖의 땅이고, 불쌍하고 가난한 땅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탤런트 김혜자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신 김혜자씨의 글과 사진은 저의 마음에 파장을 주었습니다.

'신이 버린 땅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그 땅은 정말 신이 버린 땅일까?

라는 물음이 계속 되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고 제 뇌리에 지속되었고 때마침 교회에서 대학부 주관으로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팀은 당시 교회에서 파송받은 배성호 선교사님께서 계신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 대해 성도들에게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저는 아프리카를 향한 마음을 더 강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교 휴학을 하고 남아공에 1년 동안 가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현실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졸업반이었던 저는 당장의 취업에 신경 쓸 때였기에 믿지 않는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는 건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당시 오랜 기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1년간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확고히 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재정을 모아갔지만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출발 예정일의 일주일 전까지도 예상 금액이 모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초조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후원들이 들어오면서 예상한 재정이 딱 맞춰지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 가서도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1년을 목표로 했었지만 3개월 만에 비자문제로 들어오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재정과 함께 다시 아프리카로 보내주셨고, 예상한 1년을 채우고 돌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에 있으면서 부족하나마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MK 사역, 컴퓨터 교육, 한글 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프리카는 하나님이 버린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아프리카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내)가 버린 땅이었습니다. 우리(내)가 그 영혼들에게 무관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사랑으로 품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아프리카나 흑인들을 우리보다 낫게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노벨상을 20명이나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미국, 중국, 인도 외 15개국을 합친 정도의 면적일 정도로 크며, 전세계 대륙 중 가장 많은 국가가 모여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는 인류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하며, 현재는 많은 흑인들이 스포츠스타, 예술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만 그들은 그들의 원함과 다르게 수세기 동안 유럽의 식민지 노예로 당하며 죽어갔고, 수많은 자원들 때문에 전쟁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 의해 보이지 않게 정치, 경제적인 식민지로 살아가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를 알면 알수록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많은 땅임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식민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조선이라는 땅. 조그만 한 이 땅을 사랑하고 품은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족상잔의 뼈아픈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을 도운 많은 국가와 단체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은 불과 몇십 년 전 일이지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이기고 자립 할 수 있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아프리카 땅이 자립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늘 소망을 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아공에 1년간 잘 다녀온 것만으로도 큰 복이었지만, 다녀온 이후, 하나님은 제게 또 다른 복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다녀오느라 취직준비도 못했던 저에게 바로 전공을 살려 IT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하셨고, 이윽고 오래 교제했던 그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만 신경 썼어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을 아프리카 땅을 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선교 한 거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습마저도 기뻐하셨던 거 같습니다.

현재 저는 '헬로 아프리카'라는 아카펠라 팀에서 활동하면서 아프리카를 소개하고 모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프리카를 잊지 않고 품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Hello Africa
My friends, I want you to know that no one made up the message I preach.
It wasn't given or taught to me by some mere human. My message came directly from Jesus Christ, when he appeared to me.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마지막으로 113년 전 주님의 사랑을 품고 아무도 찾지 않던 한국땅을 찾아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나누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아프리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길, 우리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자라 오르지 못한 땅에 저를 옮겨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 왔는지...

사실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냅니다.

조선사람들의 속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길이 없으니어찌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고, 하늘나라 한 백성인 것을 알고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이제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소서.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Universal Care 몽골 선교 장학생

트무르 전도사 간증



먼저 이 간증을 읽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드립니다.

몽골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의 헌신에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님께는 영광을 올려 듭니다.

제게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1994년에 저는 승려가 되고자 한 승려의 제자로 들어가 람(승려)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점을 쳐 주고, 큰 바위나 나무또는 높이 쌓아올린 돌무덤들 앞에서, 거짓 우상들을 열심히 송배하고 따랐습니다.

다른 승려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따르던 중, 저는 어느새 큰 지위도 얻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나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술을 마시며 지내던 저는 결국, 한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2년 뒤, 1996년 제가 아는 렌칭어치르를 통해 저는 처음 복음을 들었고, 그때 저는 아주 완강히 반대하며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친 저는
3년 뒤 어머니께서 돌아 가시면서 크게
방황하고 인생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술을 점점 더 많이 마시면서 나의 가족들과
아이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불안하게
위협하며 힘들게 한 탓에 그만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 방황할 때,
나의 두 동생은(자가르, 에르덴치멕)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줍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더욱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들이 하자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어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집을 전전긍긍하며 지내다가 한 친구의 할머니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시골이 한 산골에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게르(몽골전통집)안에 들어가는 나무를 만들며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봄에 우연히 해 그림이
그려진 책을 한 권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신약성경중에 요한복음만 나와 있는
책이었습니다.

조금 들쳐 읽다보니 재미도 있었고, 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 년이 지난 뒤 저는 금광에서
광부로 일도 하게 되었고 바트을찌 교회의
청년부에서 리더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여려운도 커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자가르)을 따라 흉드아이막에서 그의 가족들과 살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동생의 시어머니(체렝치멕)는 영원한 부르심교회에 다니면서 나를 위해 재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새 삶을 위해 많은 것을 도와 주셨습니다.

그 분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2003년 8월 22일 하막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어 울란바타르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그 학교는 우르딩게게 교회 옆에 있었고,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신학교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2년 4개월 동안 공부를 했고, 그때 지금의 하나님의 날개교회로 보내심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날개 교회로 보내심을 받아 섬기고 있었지만, 황필남 선교사님의 지도와 도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날개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가 구한 대로 2005년 12월 7일 황필남 선교사님의 축복으로, 아내 낭살마와 다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한, 당신의 뜻 안에서 헌신하는 기쁨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황필남 선교사님과 그분의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오랜 시간 인내함으로 참 많은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정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은, 저를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저와 같이 연약한 자를 세우시니, 저도 제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사역이 더욱 그 지경을 넓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저와 같이 더 많은 간증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몽골 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한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트므로 올림.

(번역 : 부천 봉골교회 황하람집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선교지에서 온 편지 I

동역자 여러분들, 평안하신지요?



GBT 선교회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눅 12:33 절)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루
일상이 어찌 지나가는지 모르게 아릴락의
수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빽빽하게
이어집니다.

아릴락의 첫 수업! 음성학!

간간히 연락해주시며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풀어진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모아봅니다.
동역자 여러분들, 평안하신지요? 같은 하늘
아래 가까운 한국땅 포항에 살고 있지만 보고

아릴락 훈련이 시작된 지 2 주가 지났습니다.
세상의 언어에 존재하는 각각의 소리들을
기호화 하여(저희가 수업시간에 배우는 음성학
기호는 약 200 여 개입니다.) 소리가 나는



원리와 위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배우는 수업입니다. 입술로 나는 소리, 이빨과 혀를 이용하는 소리, 목구멍을 이용하는 소리, 목젖을 이용하는 소리, 성대를 막고 공기를 빨아들여 내는 소리, 등...수도 없이 많은 인간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각 소리들을 배우다 보면 이 세상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의 세밀함을 느낍니다.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한국어에 자음과 모음을 합친 소리와 낱말, 문법과 그 변형이 있듯이 각각의 언어에 각각의 법칙과 체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인간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오묘함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각각의 소리 속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소리를 따라 하다 보면 현지에 가서 언어를 듣고 분석할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따라 하기 힘든 소리를 만나다 보면 우리가 가는 그 곳에도 이 소리가 있을까? 잠시 생각해보기도 하구요. 우리가 현지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곳의 이방인이 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존중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모여 선교지 공동체의 일원으로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진다면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비취지게 된다면...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렇기에 음성학이라는 과목은 참 귀하고 유용한 과목입니다.

음성학을 배우면서 신기하게 생각된 것은 각각의 강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부위의 소리를 잘 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부위의 소리의 식별과 흉내에 강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재능들이 다 다른 것을 보고 세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음이 약간이라도 떨어지면 그것이 쉽게 인식이 되어서 오히려 예배에 내 귀가 방해되어서 음악을 하는 사람도 아닌 내가 이런 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 조금은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언어의 톤을 구별해 내는데 남다른 소질이 있는 것을 보고 쓸데없다 생각한 것도 다 쓸모가 있구나..하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릴락 2013 학번 동기들

이번 해 아릴락 1 학년은 18 명의 한국인과 6 명의 외국인 총 24 명이 함께 공부합니다.



6 명의 외국인 학생은 3 명의 미얀마, 2 명의 몽고, 1 명의 싱가포르 친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명의 친구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자기가 속해있는 부족이나 이웃 부족의 말씀 번역 사역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국어를 잘 구사하는 싱가포르 친구는 중국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이 곳 아릴락까지 오는 저희들의 여정도 그리 쉽지만은 않았는데, 자국에서 똑똑한 전도유망한 청년들이 이곳까지 오는 여정이 수 많은 자기부인의 과정을 거치고 오게 된 결과인 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작년 6 개월간 필리핀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인지 만나자 마자 피부색의 다른에서 오는 이질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르게 생긴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내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18 명의 한국인 훈련생들 중에는 성경 번역 뿐 아니라, 문해 사역(글자가 없는 그 곳에서

글자를 만들어 가르치는 사역 전반), 원스토리(one story) 사역(성경이 번역되기까지 성경을 이야기로 만들어 구전문화의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사역), 교회 동원 사역(선교지에 있는 현지 교회들에게 성경 번역 사역에 대한 소개와 참여를 독려하는 사역) 등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아릴락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밖 아릴락 하우스에서 사는 사람, 한동대 기숙사에서 하는 사람, 저희들과 같이 흥해에 사는 사람들은 점심 때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뷔페처럼 싸온 반찬을 펼쳐놓고 점심을 먹습니다. 기숙사 친구들은 취사가 불가능하기에 일반 가정집에 사는 선교사님들이 좀 더 밥과 반찬을 싸 온답니다. 저희들도 해리요가 창원 외할머니 댁에 가서 아이들 점심 때문에 집으로 와서 먹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음주부터는 점심 뷔페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힘든 훈련들도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 풍요롭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지난 이후에 아릴락의 점심 시간을
그리워하게 되겠지요?

해리요의 마음에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요?

깜짝 선물!!!

해리요's story

새 양말 이야기

저희들은 집 앞에 있는 새벽 이슬교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주일학교가 많이 생동감이 있습니다. 해리요를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에 안도감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틀간 어린이 주일학교 겨울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 날 밤 아이들에게 세족식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해나와 리나가 설명해주더군요. “선생님은 예수님이구요, 우리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 주셨어요. “기분이 어땠어?”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발을 다 씻고 난 뒤 수건으로 닦아주시고는 새 양말을 꺼내어 신겨주시니 너무 놀랐고 기분이 좋았어요”

둘 다 새 양말을 신을 발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섬세함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각인이 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씩

아침 8 시 20 분이면 다섯 식구가 집을 나섭니다. 해나와 리나는 1 시 30 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고 저희들은 5 시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전 아이들은 늘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문자로 “엄마, 아빠 집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걸요!”라고 옵니다. 한 날은 말끔하게 치워진 집을 저희들에게 선물하더니 또 다른 한날은 쌓여있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고 벽찬 가슴으로 저희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들의 말대로 정말로 깜짝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들이 커 가고 있구나!’하고 감격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해리요에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안쓰럽기 그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요즘 아이들이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가기도 합니다.

두 손을 모아 함께 하며

1. 저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교사 훈련을 감사히 잘 받는 겸손한 선교사들이 되기를 기도해주세요(체력,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통합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2. 부모가 받는 훈련으로 인해 아이들이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혼자 해내어야 할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건강하게 자라가는 밑거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삶 속에서 날마다 배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파송교회, 후원교회와 단체가 견고히 세워지며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5. 협력교회와 개인 후원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연락처

가정 엄천영 010-4765-7357

/ 안수아 010-6204-7334

인터넷 전화 : 070-8265-7357

전자 우편 : chonsue@naver.com

/ sueaahn@naver.com

선교단체 성경번역 선교회 (<http://gbt.or.kr>)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2길 33

(02)598-5324 /

재정담당 간사 070-8670-6360

후원 안내

외환은행/ 303-04-00019-349/

(예금주: 한국 해외 선교회)

-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 저희 가정의 가상 계좌 번호입니다.
- 후원을 처음 하실 때에는 송금 전 또는 후에, 성경번역 선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재정간사에게 송금인, 현금자 이름(교회/단체), 주소, 전화 연락처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II

B 국에서

주바울목사

B국선교사



마약중독자센터 방문

1 월 초에는 조금 특별한 곳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3 시간 정도 떨어진 T 지역에 있는 마약중독자센터('만민은혜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에서 B 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곳을 방문하였고, 그가 잘 아는 B 국 분이 종종 그 센터를 방문하는데 그 한국 사역자의 요청으로 함께 방문하여 강의와 묵상훈련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날은 신년 금식기도회 겸 훈련을 위해 6 개 센터에서 약 70 명 이상이 와서 모여있었습니다.

그 센터는 외부의 후원을 얻어서 건물이 제법 아담하게 만들어진 곳인데,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가 난 곳은 아니지만, 그냥 활동을 내버려두는 형식을 통해서 허락 받고 있는 곳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B 국에서 마약의 확산은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복음에 반응을 하고 나면, 그 센터에서 2 년간 합숙하며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은 다음, 사회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 사역을 담당하는 C 목사는 15 년 전 복음을 알고 나서, 누구에게 주님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잘 돌아보지 않는 마약중독자들을 돌보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신실함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일모임

그저께 주일은 예배 후, 2부 순서인 성경공부 모임에서 H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가운데의 아픔과 또 주님을 만난 지금의 기쁨이 교차하면서 감정이 복받친 것 같습니다. 그는 종종 주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해왔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몰랐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곤 하였습니다.

말씀은 진정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H가 나눔 모임에서 고백하는 말들은 모아보면 참 좋은 어록집이 될 정도로 귀한 고백들을 쏟아냅니다. 비록 그는 짧지만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주일 모임은, 제가 묵상사역 등에 신경을 쓰다 보니 많은 관심을 투자하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숫자보다(-많은 숫자의 결실은 분명 현지 신자들이 더 잘 이를 것입니다-) 말씀에 바로 선 주님의 제자를 길러낸다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몇 가지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새해 새 사역의 인도하심 여부에 대해-
묵상사역을 진행하면서 그 동안
자연스럽게 B국 성서유니온 설립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아시아성서유니온(SUEWA)의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동일한 관점에 중요성을 두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동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사역을 위해 여섯 사람이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한국선교사 세 사람, B국
동역자 세 사람).

올해는 제가 이 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저는 여전히 함께 동역하며 훈련사역
쪽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새해에 있는지
기도하며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 중요한
하나는 주일모임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많은 숫자보다, 바로 가르치는
것이 이곳에서 선교사가 현지 교회에 줄 수
있는 유익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
주일모임에 대한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제가 지체들을 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게
기도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전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주일모임을 계속
붙잡고 나가고, 좀 더 잘 가르쳐볼까 합니다.

한국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훈훈하게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넘치시기를 빕니다.

2. S 형제 - 최근 주일 모임에 S 형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주님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참여하던 두
형제가 떠나고 나서 형제가 사라졌는데, 다시
한 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2013년 1월 22일 B국 H시에서

주바울 선교사 가족드림.

3. 감사 - 한국에 있는 저희 큰 아이 하은이가
발 수술을 지난 1월 초에 받았습니다. 4월
초에 완전히 치료를 마칠 것 같습니다. 약
10년 전 이곳을 방문하신 어떤 의사 선생님을
상담했을 때 아이가 성장이 다 된 다음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는 소견이 있어서
기다렸다가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엄청 높던 수술 가격이
많이 싸지고, 보험도 적용되어서 저렴한
가격에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목발을 짚고 다니지만, 아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잘 배워갔으면 합니다.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선교지에서 III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MK 국제학교



“해 듣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
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 113:3)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벌써 1년의 시간 마감이 눈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
다는 말씀이 실감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
게도 동일하게 1년 동안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일을 이루셨을 줄을 믿습
니다. 1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드리고
또한 저희 가정과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
들과 1년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2013년
새해를 맞아 주님의 큰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

히즈킹덤인터내셔널 선교회
(His Kingdom International)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2011.11.5일 성도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앵카이사회 및 히즈킹덤인터내셔널 선교教会가 2012년 한 해 동안 장승기 이사장님을 위주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사역해주고 계십니다

앵카 제2캠퍼스 개원(중/고등학교. 기숙사)



MK(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부모와 떨어져 자녀들만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 그 동안 필요했던 기숙사와 중·고등부 캠퍼스가 6월 15일 개원했습니다. 기숙사로 인해 9월 신학기에 들어 새로운 자녀들이 20명 이상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MK들로 구성되어 중고등학교 33명 가운데 선교사 자녀들이 80%정도로 구성되어 진정한 MK 학교로서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인터서브 선교회와 MOU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필리핀 가모티스힐스 아카데미와의 자매결연에 이어 인터서브 선교



단체와도 MOU 협력체제를 맺었습니다
선교단체 MK들 관리와 앵카학교를 위한 국제
인터서브 단체의 협력을 기대해봅니다

중·고등부 Retreat



10월 13일 1박 2일 중·고등부 Retreat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지에서 대부분 생활하던 80%가 MK인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국생활을 처음 해보면서 속초양양을 방문하고 군대체험 등 한 국의 경치를 보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1. MK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MK들에게 50%~100% 장학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교 운영상 그만큼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2. 기숙사 및 중·고등부 제2 캠퍼스가 중미 산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눈길 버스운행, 교사차량운행 등) 없이 추위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벌써 교사차량이 사고가 나서 교사 한 분이 다치셨습니다. 낙후된 교사차량도 교체할 수 있도록 재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3. 부모님들과 떨어져 있는 MK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들의 손길이 그리운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그들을 돌보는 기숙사사감(돔페어런츠)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원어민 교사들과 모든 학교 관계자들, 학생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12년 한 해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히즈킹덤인터내셔널 선교회와 앵카학교를 위해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K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들을 차세대 선교자원으로 준비시키며 이들과 함께 국내와 국외에서 학교 교육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도 계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새해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하시는 사역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30 ANCA,
히즈킹덤인터내셔널 선교회 드림

후원계좌: 히즈킹덤인터내셔널 선교회
국민: 220401-04-106462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222-2 /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73-3
031.773.5665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선교사 기도제목

러시아로스톱 나 다누 김우섭선교사



신학교 사역을 위해

1. 신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좋은 일군들, 건축 자재들이 제 때에 공급되도록, 안전을 위해. 재정을 축복해 주시도록

2. 새로 시작되는 새 학기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도 모든 신학생들에게 충만한 은혜의 배움이 있도록. 강사들을 위해. 신입생 모집을 위해.

교회 사역을 위해

1.그동안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옮겨야 합니다. 적당한 장소를 구하도록. 구원 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도록.

2.쿠르바노프 목사님이 교회 사역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로스톱 신학교 1 회 졸업생). 좋은 동역이 이루어 지도록.

3.교회 등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저희 집 큰 애 지민이의 대학 진학을 위해.

5 월에 있게 될 수능과 등록금, 그리고 기숙할 장소를 위해(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몽골

황필남선교사

www.pnhwang.com



1.3 월 14~16 일간 열리는 워싱턴 몽골 교회

10 주년 기념집회에 기름부음이 넘치도록

2. 김말례 선교사가 수술 후 힘든 가운데 있는데, 속한 회복이 되도록

3. 2013 여름 몽골 단기팀들의 사역을 위해

4. 이양해준 온 민족 추수교회와 모직 목사가 목회를 신실하게 계속하도록

5.지방 교회가 6 개가 지난해 더 자립하였는데 남은 교회들이 더 자립하도록

6.선교사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도록

7. 이번 학기에 베자니아 크리스찬 대학에 몽골인 학생을 잘 가르치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8. 계속되는 미국 사역속에서 몽골교회들이
개척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성호선교사

www.josephbae.com



1. 성령의 지혜를 품은 일꾼들을 일으키소서
2. 이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선교사 후보생들을 일으키소서
3. 예수 생명교회의 부흥과 한 영혼,
영혼들을 위하여
4. 2013년도 비전을 위해서

1. 새로운 신입생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2. 러시아어 예배 리더와 부흥을 위하여
3. 키르키즈 예배 리더와 부흥을 위하여
4. 학생들을 두고온 가정과 식구들을 위하여
5. 기숙사 생활과 직장 문제와 안전을 위하여
6. 신학교 운영과 졸업생 후원의 재정적 문제
를 위하여
7. 좋은 교수진, 좋은 통역자, 후원자를 허락
하소서
8. 디아스포라 신학교 졸업생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9. 후원교회와 기업과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 러시아 연해주 정태화 선교사



||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1. 하나님께서 연해주에 북한 선교에 대한 많은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 연해주에 많은
깃점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베트 교회도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쓰
임 받을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할수 있
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2. 연해주에는 아직 교회가 없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전도 지역에 복음의 문이 계속 해서 열릴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수 있도록, 각지역을 맡고 있는 담당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4. 홀로 계속되는 사역에서 탈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우수리스크 교회가 작년에 부지 확보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중심에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이 시작될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6. 2년전부터 개척을 시작해서 다섯 가정정도 확보한 노보기울기프까 지역에 모임을 할 수 있는 예배 처소와 앞으로 처소교회를 책임질 사역자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7. 작년에 갈룬끼라는 지역에 새롭게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루두밀라 권사님이 매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개척에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 그 지역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 올해 안식년을 받았습니다. 온가족이 재충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양겔레스

신동주 선교사



1. 건축 가운데 공사가 끊이지 않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소서
2. 건축중인 사람들(한도균, 김병남, 신동주)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안에서 새로워지도록
3. 비자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4. 건축중에도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안에서 충만해지도록
5. 캠퍼스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 B 국 주바울 선교사



1. 목상사역이 적절한 시간을 통해서 잘 위임되게 인도해주옵소서 위임의 일들과 과정 속에 주께서 관여하옵소서.

2. B 국 성서유니온 설립을 위해

3. S 형제 - 최근 주일 모임에 S 형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주님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참여하던 두 형제가 떠나고 나서 형제가 사라졌는데, 다시 한 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4. 주일에 모이는 작은 예배 모임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인도해주옵소서.

5. 한국에 있는 저희 큰 아이 하은이가 발 수술을 지난 1월 초에 받았습니다. 4월 초에 완전히 치료를 마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캄보디아 송찬송 선교사



1.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2. 열방이 행복한 교회가 캄보디아에 퍼지게 하옵소서
3. 사랑의 밥차 봉사협력자들이 생기도록
4. 쌀 밀가루 협력교회 단체 생기도록
5. 열방이 행복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6. 모든 열방언제 어디서든 주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 되도록

|| GBT 선교회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1. 저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교사 훈련을 감사히 잘 받는 겸손한 선교사들이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체력,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통합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 부모가 받는 훈련으로 인해 아이들이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혼자 해내어야 할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건강하게 자라가는 밑거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삶 속에서 날마다 배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파송교회, 후원교회와 단체가 견고히 세워지며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5. 협력교회와 개인 후원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1. MK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MK들에게 50%~100% 장학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교 운영상 그만큼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2. 기숙사 및 중. 고등부 제2 캠퍼스가 중미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눈길 버스운행, 교사차량운행 등) 없이 추위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별씨 교사차량이 사고가 나서 교사 한 분이 다치셨습니다. 낙후된 교사차량도 교체할 수 있도록 재정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3. 부모님들과 떨어져 있는 MK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들의 손길이 그리운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그들을 돌보는 기숙사사감 (돔페어런스)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4. 원어민 교사들과 모든 학교 관계자들, 학생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A국

김아굴라 / 최브리스길라 선교사



1. 제 2 기 사역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고 주께 힘을 얻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면서 깨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2. 최선교사의 건강과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3. 원지, 현지가 현지학교에서 러시아어의 진보와 반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4. 저희가 안전하게 잘 체류할 수 있도록
5.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가 새로워지고 주께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6. 더 많은 사역자들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7. 3 월의 사역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8. 사역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재정들이 채워지도록

Universal Care 소식

및 기도제목

1. Universal Care 선교회지 2013 봄호 출간

2013년도 “Universal Care” 선교회지 봄호(통권 14호)“부르심 그리고 헌신”이 출간되었습니다. 선교회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책자나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Universal Care 열방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매주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신 vision 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연세 U 치과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후원 계좌 안내

신한 110-302-594082 예금주 : 최혜원

4. 선교사 동정

- 1) 김말례선교사님 (황필남선교사님)이 1월 건강상의 이유로 급히 입국하시어 세브란스에서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회복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엄천영 선교사님 필리핀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다시 한동대 아릴락에서 훈련 받기 위해 입국하셨습니다. 포항에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3) 김우섭선교사님이 지난 2월말 러시아 신학교 학생 졸업식 관계로 일시 귀국하셨다 2주만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가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UC 토요
열방기도회에도 오셔서 귀한 말씀과
사역을 나눠 주셨습니다.

4) 캄보디아 송원식 선교사님께서 병원
방문을 위해 일시 귀국 하셨습니다.

5.제 15 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일시 : 2013년 3월 16일(토) 오후 5시

장소 : 월드와이드교회 3층 요셉홀

강사 : 이삭 목사 (모퉁이돌 선교회)

찬양인도 : 와이즈맨워십 선교단

4. 100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소서.
5. Universal Care 를 통하여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Network 가형성되게
하소서.
6. 2013년 주실 비전과 사역 계획 위에 주의
기름부음을 주소서
7. 북한 땅에 우상을 헐어내고, 그 곳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6.다음 16 차 정기예배 안내

일시 : 2013년 5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강사 : 황필남 선교사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황영석, 윤금희, 홍성훈, 정경미, 김세웅
신보균, 주혜숙 권현주, 정진호, 최혜원
양태부, 최미영 신현우 김병광 박말향
박성규

연세U치과, 이레엠티주식회사

송도 맑은샘 음악학원, 벤엘교회

장소후원 :월드와이드교회

기도제목

1.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를 돋는
요셉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소서.
2.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위에 기름
부으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3.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전세계를
감당하는 선교회 되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 는 2009 년 6 월 23 일 첫 정기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Universal Care 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조력하여 그들의 사역과 삶을 돋고 살피며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네트워킹하여 하나님의 재화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창고'의 역할을 하는 선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현재, Universal Care 는 몽골 황필남 선교사, 러시아 김우섭 선교사를 비롯한 9 명의 선교사와 2 개의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몽골 장로교 연합신학교 나랑체체, 트무르 전도사, 선교신학대학교 앵크체체 전도사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은 선교사들과 영적, 물적 관계의 곤을 잇는 최소한의 표현이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사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같은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Universal Care 는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첫째, 단기 Outreach 를 통하여 선교사의 교회개척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 Outreach 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육, 찬양, 의료, 긍휼사역 등 모든 장르의 달란트로 종합적인 선교의 동역자로 설 것입니다.

둘째, 선교사 자녀를 위한 MK(Missionary Kids)를 위한 사역자가 계속하여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단기간의 한글 교육, 또한 뮤직 캠프, 등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사역은 선교사로 하여금 더욱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될 것이며, 차세대의 준비된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선교사를 위한 Guest House 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건물을 가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방 하나를 단기입국한 선교사에게 내어 드리는 것도 귀한 나눔과 섬김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선교지에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교지를 좀 더 안정적으로 Support 하며, 그 민족의 리더십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배를 통해 선교현신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국 교회에 선교의 불을 더욱 크게 지피는 것입니다. 이것의 하나의 모습이 바로 Mission Conference 이기도 합니다. 매 분기(3,6,9,12 월)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열린예배로 선교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이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제15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찬양인도 : 웨이즈먼 웨십 선교단

강사 : 이 삭 목사

모종이드 선교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소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 24)

후원선교사

황필남 선교사 (몽골) www.pnhwang.com

김우섭 선교사 (러시아 로스톱 나다누)

배성호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www.josephbae.com

정태화 선교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신동주 선교사 (필리핀 양겔레스), 주바울 선교사 (B국)

엄천영 선교사 (GBT 선교회), 송찬송 선교사(캄보디아)

김아굴라선교사 (A국)

디아스포라신학교 (김영제목사)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 MK 국제학교

Universal Care 장학금

: 몽골 장로교 신학교 트무르, 나랑체책 전도사

몽골 선교신학대학 : 엉크체책 전도사

Universal Care

www.cyworld.com/universalcare